한국의 민화와 김홍도

여러분은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버이날에 예쁜 카네이션을 만들고 사랑을 담은 그림 카드를 부모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까? 좋아하는 친구에게 하트를 가득 그려서 전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전달할 때 말과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더 멋있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아름다운 꽃과 풀, 동물, 하늘, 바람, 바위 등 우리가 자주 보는 것들에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것을 민화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린 민화를 보면 당시 사람들의 감정과 소망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민화에 나오는 재미있는 상징 표현을 알아봅시다.

〈까치 호랑이〉

까치 호랑이 그림을 먼저 살펴봅시다. 크고 노란 눈에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난 호랑이와 소나무 위에 자리 잡은 까치가 있습니다. 까치와 호랑이는 한국의 민화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까치는 기쁜 소식을 상징하고, 호랑이는 안 좋은 것을 막아주는 상징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마을이나 집을 지키는 그림으로 까치와 호랑이를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까치 호랑이는 다른 뜻으로도 쓰였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호랑이가 까치를 노려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호랑이와 까치를 싸우거나 화해하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그림으로 여러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민화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민화를 그린 화가도 알아봅시다. 김홍도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중 한 명입니다. 김홍도는 조선시대에 궁에서 화원으로서 임금님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림을 아주 잘 그렸기 때문에 임금님들도 김홍도를 매우 아꼈다고 합니다. 임금님을 그리는 화원이었지만 김홍도는 궁 밖에서 생활하는 백성들이 즐긴 민화도 잘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그림에는 귀여운 고양이와 나비가 놀고 있고, 뒤에는 예쁜 꽃과 돌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누군가의 6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속의 고양이는 70살 노인, 나비는 80살 노인을 의미합니다. 고양이가 10살 많은 나비를 쫓고 있는 게 보입니다.

〈황묘농접도〉

마치 검은 나비가 아기 고양이를 어리다고 놀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그림에서 꽃은 젊음, 돌은 변하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70살, 80살이 돼도 젊음을 잃지 않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송호맹호독〉

이 그림은 김홍도가 그린 호랑이 그림입니다. 호랑이 털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소나무는 김홍도의 스승인 화가 강세황이 그렸고, 호랑이를 김홍도가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서 호랑이는 꼬리를 들고 등을 세우고 정면을 보고 있어 매우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옛날부터 호랑이는 나쁜 것을 물리치는 의미로 그려졌는데 이 그림의 호랑이를 보면 귀신도 놀라 도망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홍도는 뛰어난 그림 솜씨뿐만 아니라 작품 속에서 여러 상징을 잘 보여주는 화가로도 유명합니다.